

2024.09.22(주일)

제18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추석 명절이 지난 첫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18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니다

발행일 2024년 8월 22일
발행인 태동화(선교국 총무)
편 집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편집인 이승현(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 화 02-399-4340

농촌선교주일 후원 계좌

우리는행 142-242485-13-149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문의처: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02-399-4340)

차례

목회 서신_감독회장 이철	3
영성 회복의 길	
인사의 글_김종구 목사(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위원장, 서울남연회 세신교회)	5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농촌선교주일	
주제 해설_최대광 목사(서울연회, 공덕교회)	8
새로운 영성: 햇빛 발전소와 생태적 참여를 위한 창조 중심의 영성 제안	
공동기도문_김용민 목사(충북연회, 사랑의사도교회)	23
교육문_이성호 목사(배재대학교 교목)	24
농촌 교회 설교문_임성식 목사(남부연회, 거사성가교회)	26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니다	
도시 교회 설교문_임재학 목사(서울남연회, 제자교회)	30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성 회복의 길

감독회장 이 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국내외 모든 감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가을의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맘때쯤 부지런한 농부의 가을 들녘 소식을 듣습니다. 이분들은 일 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생명을 가꾸어 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섭리를 가꾸는 일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농어촌 교회는 도시 교회의 뿌리입니다. 농부는 생명을 가꾸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은 피폐해지고, 점점 고향의 꿈과 추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물을 길러 수확하기까지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과 농부의 마음을 아는 오늘날의 농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에서는 농촌선교주일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8회 농촌선교주일은 9월 22일(주일)입니다. 바라는 온 감리교회가 농촌의 현실을 기억하고 농촌 선교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농촌선교주일은 농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입니다.

올해 주제는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입니다. 농촌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도움, 교류가 아니라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농촌선교주일이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든 행동은 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비문명》의 저자 마사키 다카시는 “환경 문제는 드러난 현상이고 본질은 인간의 의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자연에 안겨 있는 인간이 자연환경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상 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에 있으므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이라는 ‘창조 중심적 영성’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집은 ‘창조 중심적 영성’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창조 영성에 기반한 예배문과 기도문, 실천 자료들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 이어 ‘태양열 집전판을 통한 햇빛 에너지’ 사용이야말로 창조 중심적 영성의 표현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크게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곳이 농촌입니다. 농촌과 농촌 교회를 살리고 함께 상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햇빛 발전소 설치와 확장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도시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농촌 교회의 햇빛 발전소는 환경을 살리고 농촌 교회가 자립하는 기반이 됩니다.

올해 농촌선교주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새롭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햇빛 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설치하는 교회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햇빛 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촌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도시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농촌선교주일’

농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합니다. 저는 경북 영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영덕군을 포함하여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봉화군 등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수년 내에 지명을 상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들은 어린 시절에 소풍과 교회 수련회, 야유회 등을 다닌 곳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경북만 해도 전체 23개 시군(市郡) 중 80퍼센트에 달하는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지금은 경북과 전라도의 비율이 높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0년 농가 인구는 231만 4천 명, 2021년에는 221만 5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3퍼센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14.9퍼센트인데,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은 세 배나 높은 46.8퍼센트입니다. 농가 인구는 매년 3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농촌이 자연 소멸할 것이라는 무서운 통계입니다. 식량자급률은 2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식량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6년 총회에서 농촌 선교는 교단 차원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감리교인들의 마음속에 농촌 교회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매년 한가위 명절을 쉰 첫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도록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촌 선교의 과제를 주제로 내걸고 농촌선교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선교국 산하 감리교 농어촌선교위원회(이하 농어촌선교위원회)는 2022년부터 농촌 사회와 교회를 살리자는 장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10년 동안 ‘농촌 교회를 살리자’라는 기치 아래에 농촌선교주일지킴이 운동을 범감리교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농촌선교주일은 9월 22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에 맞게 날짜를 선택하여 예배드리고 봉헌된 농촌선교주일헌금을 농어촌선교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교주일 연합예배는 2024년 9월 1일(주일) 오전 11시(서울남연회 양천지방 세신교회)에서 드립니다.

농어촌선교위원회는 그동안 농촌 사회와 농촌 교회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며, 농촌 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촌선교훈련원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과 아울러 농민기본소득제도의 제정을 위해 수년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산촌 교회실태 및 목회자의식 조사사업’을 10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2024년 봄에 3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빈 주택과 농토를 이용한 ‘돌봄농장(Care Farm)’을 형성하는 지역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농장 사업은 특별히 유럽 선진국들이 농촌과 협력하여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마을 기업의 사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의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농촌 사회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감당하고 담당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농어촌선교위원회는 이러한 농촌 교회와 농촌 사회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농촌선교주일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토양을 형성하는 사역입니다. 농촌선교주일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농어산촌 지역의 감리교회의 생존과 부흥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려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를 이루려고 합니다. 2024년 농촌선교주일의 주제는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입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협동조합 명의로 마을에 30kwh 규모의 사업자용 햇빛 발전소(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 선교와 주민돌봄 사역을 하는 방안을 시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용협동조합과 연합 사업으로 진행되며, 신용협동조합은 총공사비의 80퍼센트를 융자하고(3천만 원 상당), 농어촌선교위원회는 자부담액의 80퍼센트(1기당 1천만 원 상당)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일이나 사업자용 햇빛 발전소를 내는 일도 모두 시간과 조건이 맞아야 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선교위원회 농촌선교주일 헌금으로 매년 햇빛 발전소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을 이용한 가정용 햇빛 발전소의 자부담 비용도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농어촌선교위원회가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노블란트 치과(원장 박세일)와 ‘감리교 농촌 교회와 주민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 할인 협약식’을 체결한

것입니다. 노블란트 치과에서는 국내 최상위급 프리미엄 형의 임플란트 소재를 사용하며, 이를 감리교 농촌 교회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50-6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선교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과 연결하여 농촌 교인들과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고,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력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교회가 시행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을 살리기 프로그램(특산품과 관광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등 재난과 긴급한 구호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선교주일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들과 교우 여러분, 2024년 농촌선교주일(9월 22일) 성수에 참여해 주십시오. 농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농촌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헌금을 보내주시면 농촌 교회가 농촌 사회를 살려내는 농촌 선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 교회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살려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농촌 교회를 품으시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농촌선교주일을 준비하며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종구 목사와 위원 일동

새로운 영성

햇빛 발전소와 생태적 참여를 위한
창조 중심의 영성 제안

최대광 목사

(서울연회, 공덕교회)

들어가는 말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와 물리학자 브라이언 스웸이 공저한 《지구적 문명을 향한 선언(Manifesto for a Global Civilization)》에는 종교 간 대화와 심층적 에큐메니즘, 창조 중심적 영성, 사회정의, 우주적 그리스도의 재구성, 변혁적 교육과 노동, 신비가와 개인적 경험에 대한 강조, 치유와 전체성이라는 주제로 낭독한 선언문이 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두 단어 곧 ‘향한(for)’과 지구적 ‘문명(Global Civilization)’이다. 지금은 생물학적 시대 구분이 인문학과 만나 과거 1만 년간, 지구의 기온이 안정화되었던 때를 ‘클라이스토세’라 하고, 현재 인류로 인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인류세’라고 하지만, 매튜 폭스와 브라이언 스웸이 이 선언문을 내놓았던 때는 1982년이였다. 이때 지구 공동체의 문명을 위한 전혀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위 일곱 가지로 선정한 것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중 도드라진 것이 첫째, 종교 간 대화이고, 둘째, 창조 중심적 영성이다. 종교 간 대화란 동서양의 문화적 만남(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에 필수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차이점과 동일성 혹은 문화적 재구성을 살피는 일일 것이다. 특히 이 선언문과 폭스의 학문적 움직임에 의하면, 이는 생태와 화해하는 종교/문화적 대화를 암시하는 말이다. 이 주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창조 중심적 영성’이다. 창조

중심적 영성이 지구적 문명을 ‘향한’ 선언 중 특히 영성신학자인 그가 강조한 부분이다. 지구적 ‘문명’을 위해서는 창조 중심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태양열 집전판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위한 것이지만, 태양열 집전판은 문명의 ‘현상’ 곧 드러남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한 피상적 처방이 계속된다면, 글을 위한 글이나, 생각의 반복일 뿐이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영성의 문제다. 곧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영성이 과연 태양열 집전판이나 환경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과 신학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성과 신학은 생태적 신학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안적 영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성은 무엇일까? 먼저 일본의 생태운동가 마사키 다카시의 글을 통해 이 문제를 추적해 보도록 하자.

몸말

1. 문제 제기: 이원론의 문제

일본의 생태운동가 마사키 다카시는 이미 우리가 ‘동의’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앞에 기업이 “환경 문제에 뛰어드는 것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순위⁰¹”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기후 문제에 대한 현대 ‘문명’의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현상 하나하나에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기를 넘기려면 문제의 근원에 빛을 비춰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⁰²”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⁰³”는 말을 인용하면서 “서양 문명에서 생겨난 환경 문제를 같은 서양의 이원론과 인간 중심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⁰⁴”라고 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01 마사키 다카시, 김영옥 옮김, 《나비문명》 서울: 책세상, 2009, 66.

02 위의 책.

03 위의 책 67.

04 위의 책.

들려준다.

가령 A 씨가 칼로 B 씨를 찔렀다고 합시다. 이 경우 칼이 B 씨를 해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또 A 씨에게서 칼을 뺏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A 씨가 분노하는 한 그는 칼 대신에 이번에는 돌이나 방망이를 찾아다닐 겁니다. 폭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힌 것은 칼이 아니라, A 씨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A 씨에게 B 씨를 해치라고 명한 것은 A 씨의 마음입니다. 더 들여다봅시다. A 씨의 마음에 생겨난 분노나 공포로 인한 마음이 움직여 그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깊이 들여다보면 A 씨의 분노나 공포 깊은 곳에서 B 씨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만들어낸 어떤 망상을 들춰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폭력의 근본 원인입니다. 환경 문제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의식에서 생겨납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망상이 욕심이나 공포를 만들고, 그 욕심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⁰⁵

환경 문제는 ‘의식’의 문제다. 아인슈타인은 서구의 이원론적 문명으로는 이로 인해 만들어진 환경 문제를 치유할 수 없고, 이 이원론의 ‘의식’을 극복해야 환경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환경 문제는 ‘현상’이고 그 내적 본질은 ‘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사키 다카시는 “인간이 그물을 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물의 일부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는 마치 인간이 환경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자신을 바다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⁰⁶

마사키 다카시는 이원론적 의식은 인간 중심적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인간 중심적 의식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근대성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데, 아도르노와 홀크하이머가 공저한 《문명의 변증법》에 의하면, “주체의 깨어남은 모든 관계에의

05 위의 책 68-69.

06 위의 책 73.

원리에서 인간 권력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⁰⁷”고 했다. 인간 권력이란 중세까지 진행되어 왔던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이성’ 특히 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도구적 이성’을 통해 자연과 ‘분리’된 인간이라는 자각에 의해, 주체가 깨어난 곧 ‘계몽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근대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원론적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원론이 근대 이후에 발생한 문제일까? 신 중심에서 자연의 일부에서 인간 이성을 통해 자연과 신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지만, 미국의 영성가 매튜 폭스는 서양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구조인 타락/구속 전통에 그 뿌리가 있다고 말한다. 철학적으로는 이보다 앞선 플라토니즘과 영지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 미셸 푸코와 같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을 ‘담론’이라고 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관심과 이에 따른 담론이 생각을 형성하고 지식을 형성하고, 이들에 의해 합의된 문명은 의식을 구성하는데, 이원론적 의식은 단지 근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꽤 오래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타락/구속 전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매튜 폭스의 타락/구속 영성 전통에 대한 비판

근대의 도구적 이성과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을 뒷받침한 서구 기독교 사상사의 뿌리는 어거스틴이며, 그 혐의의 근원을 플라토니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토니즘 더 정확히는 신플라토니즘에서의 일자(一者), 혹은 어거스틴이 받은 재해석한 ‘하나님’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죄성이 극복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원죄 의식이다. 이 원죄에 대해 폭스는 이렇게 말한다.

... 어거스틴 이전에 어느 누구도 원죄를 믿지 않았다. 원죄는 어거스틴이 나이가 들은 후에 개발한 교리이며, 그의 글을 읽는다면, 원죄는 결코 그의 신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원죄는 서구의 기독교가 자연, 창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는 것이다.⁰⁸

07 Max Horkheimer and Teodor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Continuum, 1994, 6.

08 Fox, Matthew, Original Blessing. (Santa Fe, New Mexico: Bear & Company), 48.

그렇다면 왜 원죄가 자연, 창조, 창조주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는 것일까? 폭스는 이어 이같이 비판한다.

어거스틴은 그의 원죄 교리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性)’에 관한 독특한 개념을 뒤섞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과 모든 성교는 적어도 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를 잃었기 때문이다. 영지주의도 역시 원죄를 인간의 감각적 죄라고 한다.⁰⁹

어거스틴이 원죄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것이 모든 인간에 전반적으로 저촉된다는 사유를 진행하기 위해 인간의 육적 욕망 곧 감각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죄는 감각의 영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표현인 성(性)으로 태어난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다. 이 같은 형식은 감각적 세계를 ‘죄’된 세계로 인식하게 하였고, 감각을 벗어난 내면적 지성(intellect)을 통해 신(神)의 세계로 초월해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형성된 구원론을 폭스는 ‘타락/구속 중심의 영성 전통(Fall/Redemption Centered Spirituality)’이라고 하며, 이는 감각적 세계를 벗어나 내면으로 회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신의 세상으로 초월해 가는 내면성과 초월성의 영성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깨달음 혹은 믿음이 감각적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는 것, 곧 내면성과 초월성이 어거스틴적 영성의 중심이 되는데 이런 영성 구조를 폭스는 ‘타락/구속’의 영성 전통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의 선이해가 되어버린 원죄와 구원의 도식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하여 그의 후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안고 태어나는데(타락), 이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 구원해 주신다는 논리(구속)다. 그래서 감각 세계를 벗어난 내면성, 곧 이성과 지성은 감각 세상을 초월하여 저 세상을 가는 ‘내면성/초월성’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영성적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데카르트에 의해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이성’으로 결론 지었고(cogito ergo sum), 이에 따라, 근세 이후

09 위의 책 49.

“인간의 열정들과 감각들이 열등하며 항상 통제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등식으로 발전되게 된다.¹⁰ 그런데 생태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감각적’ 세계 안의 문제다.

영의 문제로 내면화하여 초월하여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식’이 기독교적 의식의 중심이라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감각’의 문제인 생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은 감각의 문제가 아닌 시적인 직관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해도, 원죄를 중심으로 인간의 ‘몸’을 멀리하고, 영혼과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생태를 연결하는 작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이 16세기 전에 물질과 영혼은 분리된 실재라고 가르친 바와 같이 현대는 우리를 물질로 환원시켰다. 그것은 영혼을 동물, 식물, 산, 새, 땅, 물, 숲 그리고 머리를 제외한 인간의 몸에서 영혼을 뽑아내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에게 우주는 기계라고 가르침으로 다른 생명체들을 기계화 시켰으며, 우리의 몸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하였고 현대의 철학은 물질에서 삶을 끌어내게 된 것이다. 비활성 물질은 우리의 감각적 대상이 되어 버렸다. 주체와 간주체(intersubjectivity)는 상실되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객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¹¹

영혼과 지성에 의해 열등한 감각적 세상 혹은 육체적 세상은 근세를 거쳐 ‘기계론’으로 전환됐고, 이것은 근대에 탄생한 서구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폭스는 현대의 이원론적 문화의 뿌리를 타락/구속 영성 전통 이를 통한 내면성/초월성의 영성에서 보았으며, 이것이 현대 문명이 인식하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사상적 기초가 됐다는 것이다.

앞서 마사키 다카시는 “진정으로 위기를 넘기려면 문제의 근원에 빛을 비춰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라고 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태양열 집전판을 세우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현상 하나에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근원에 빛을 비춰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제거된 원인 위에 새로운 영성과 신학을 구성해야

10 위의 책 49.

11 위의 책 49.

할 것이다.

2. 창조 중심적 영성(Creation Centered Spirituality)

창조 중심적 영성을 세상에 알린 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이는 그가 새로 만든 영성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 타락/구속 혹은 내면성과 초월성의 영적 전통의 저편에, 이미 서구에서는 또 다른 영성 전통이 존재했다는 것을 프랑스 유학 중 그의 스승이었던 역사신학자 세뉴(M. D Chenu)를 통해 알게 됐다. 창조 중심의 영성에 관해 세뉴는 이렇게 말한다. “창조 중심적 영성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며 이를 실천하는 곳에서 몸과 몸의 정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방법이다.”¹² 몸과 몸의 정치와 인류의 역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함은 앞서 타락/구속의 전통과는 다른 ‘감각’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말이며, ‘삶의 방법’이란 후에 폭스가 내린 영성의 ‘정의’가 된다. 영국의 조직신학자 울슬라 킹은 ‘영성’이라는 말의 다양성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 전통에 그 기원이 있다. 본래 영성은 비서구의 종교 용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영성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와 문화를 지칭하고 있다. 즉, 영성이란 수많은 종교 체험과 활동 등을 지칭하는 종교와 세속적 스펙트럼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며,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삶의 풍요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여성 영성, 뉴에이지 영성, 세속적, 비의적 영성, 종교 간 대화와 에큐메니컬 영성, 어린이 영성, 나이 들의 영성, 영성과 건강, 성별과 영성, 인간의 풍요와 영성 등 동서양 영성의 다양한 담론이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는 경영과 영성 비즈니스와 사회, 경제, 지리와 영성 등이 논의되고 사회적·문화적 자본을 분석하는 자본의 영성이라는 말까지도 있다.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실상 영성이란 가장 포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다.¹³

12 Chenu, M.D., “Body and Body Politic in the Creation Spirituality of Thomas Aquinas,” in Fox Matthew eds., Western Spirituality: Historical Roots, Ecumenical Roots, (Santa Fe, New Mexico: Bear & Company, 1981), 193

13 King, Ursula, The Searching for Spirituality: Our Global Quest for a Spiritual Life, (New York: Blue Bridge,

영성이란 정의 없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울슬라 킹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무엇이 영성이냐가 아니라 영성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인간됨에 있어 영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¹⁴ 영성이 무엇인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인간됨에 있어 내가 정의 내린 영성이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를 정리하면 영성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성이 내 삶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범주 안에서 창조 중심적 영성을 말했던 매튜 폭스는 그의 스승인 세뉴의 말을 발전시켜 이같이 말한다.

성령은 생명이며(The Spirit), 루아흐(ruah)이고, 숨이며 바람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요, 루아흐로 숨을 깊숙히 들이 쉬는 것이며, 바람과 접촉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삶으로 충만한 길이며, 영으로 충만한 삶의 길이다. 길을 걷는 것은 일터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르다. 영성의 길이란 개인적인 것이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거나 때로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쪽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한다. 길은 굴곡져 있고 서두르거나, 인도로 빠져 달릴 수 없다. 길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그 자체일 뿐이요, 길 위의 모든 경험은 거룩한 순간으로 이루어졌다. 거룩한 ‘봄’이 그 길 위에서 계속되는 것이다.¹⁵

한마디로 폭스는 “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영어로 ‘길(way)’이라고 하면 ‘방법’이라는 뜻도 있으니, 이 역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의 삶에 ‘작용’하여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매튜 폭스의 《원복》을 해설한 줄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다》에서 폭스가 말한 ‘창조 중심적 영성’의 정의를

2008), 3.

14 위의 책 109.

15 Fox, Matthew, Creation Spirituality: Liberating Gifts for the Peoples of the Earth, New York: Haper Collins, 1991, 11-12.

“생명의 바람을 깊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이 곧 영적인 삶이요 영성”¹⁶이라고 하였다.

짧은 지면 아래 창조 중심적 영성 전반을 설명할 수 없지만, 타락/구속의 전통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영성을 특히 매튜 폭스의 원복 제1장과 필자의 줄거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과 영성

매튜 폭스는 창조 중심적 영성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그의 책 《원복》에서 창조 중심적 영성의 출발점이며, 특히 그의 영적 멘토인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말씀 신학적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영적 여행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모든 사물과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의 흐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므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우리는 그 에너지의 일부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에너지인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한정적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만하게 추측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폰라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사랑에 빠지라고 한다. 그는 “존재의 영광에 승복하여 신비로움에 가까워지라”고 말한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받는 곳마다, 존재의 영광이 있으며, 그곳에서 창조의 영성이 일어나고 있다.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를 두고 “지금 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또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¹⁷

말씀인 다바르를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로 회복할 때, 창세기 1장의 본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과 어둠, 태양과 달과 같은 찬란한 존재들이 생겨났다.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단지 말이 아닌 행동을 함유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하니 “빛이 있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싸구려가 아니고, 무기력한 말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적 에너지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적 말씀의 원형이기도 하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창조적 에너지는 죽음에 갇힌 삶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불러오는 선포였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하나님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에 있는 것이다. 예언자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는 탐욕과 부패와 따분함과 부정 뚫고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는 결코 누를 수 없는 것이다.

16 최대광,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닐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23, 27.

17 위의 책 50-51.

폭스는 창조 영성(creation spirituality)이라고 했지만, 이를 창조 중심의 영성(creation centered spirituality)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이해에 더 적합할 것 같다. 창조 중심의 신학이라 말하면, 창조를 중심으로 보되 이 안에 구속을 '포함'한 영성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타락/구속 영성이라기보다는 이 역시도 '타락/구속 중심의 영성'이라고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내적 구속이라는 차원에서 창조를 보며, 서양의 영성 전통 중 창조를 보편 계시로, 십자가 구원을 '특수 계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을 창조 중심으로 전환해서 내적 구원 혹은 감각적 세상이나 기계론적 우주를 넘어,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최종 목표인 상태에서 생태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 중심으로 영성을 재확인하고, 삼위일체 중 성자의 영역을 지나치게 강하게 부각해서 창조와 임재하여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위험성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그의 책 《원복》의 첫 장에서 창조 중심적 영성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부분이 이 '다바르'다. 위의 글에도 인용되었고, 폭스의 영적 멘토라고 한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 역시 위의 '다바르'에 중심을 두었다고 폭스는 그의 다른 책에서도 밝히고 있는데¹⁸, 실제로 엑카르트의 영성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이 '언설'보다도 '에너지'에 가깝다고 한 폭스의 표현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엑카르트는 '지금 이 하나님이다(Isness is God)'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란 '존재'는 나 홀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곧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인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드러난 것이다. 존재를 '드러남'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에너지인 말씀은 존재를 드러나게끔 하는, 하이데거적 표현으로는 존재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고, 화이트헤드적 과정 철학에 의하면, 과정적 역동을 통해 드러남이라는 존재를 가능케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존재나 드러남은 그저

18 최대광,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닐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23, 27.

피상적일 뿐이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나,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의 과정적 역동이 실제일 것이다. 존재의 존재나 '무한'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는 이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 자신의 세계관에 '작용'하여 나의 영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 영성적 눈으로 본다면, 보이는 모든 피조물 곧 내가 '지금' 보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에너지'에 의해서 '드러난' 존재다. 그러니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

꽃이 내 앞에 피어 있다 함은, 꽃이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받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우주와 새와 나무와 들짐승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동식물을 해부하여 이들 사이에 있는 세포와 핵까지 나누어 놓는다면, 아니면 물리학자들이 물질을 쪼개어 분자에서 원자 중성자와 양성자에 이르는 운동을 파악했다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에 의해 작동하는 것들이요, 이들이 하나의 생명체와 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스의 말과 같이 가장 작은 양자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창조적 에너지인 다바르는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¹⁹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 수 있다. 더 이상 세계는 열등한 감각의 집합체나 기계적 우주가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의 창조적 말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신비롭고 경외로운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고, 이 말씀을 받아 전달한 존재들이 '예언자'였다. 그래서 이 세상은 초월해야 하는 열등한 감각의 덩어리도 아니고, 생명 없는 기계도 아니다.

19 최대광, op.cit., 52-53.

경외와 경건의 장소이고, 하나님 열정의 장이다.

그렇다면 성서는 ‘창조 중심적 영성’을 포함한 문서다. 창세기도 그렇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수많은 시편 말씀이 그렇다. 또한 하나님은 초월적 ‘이성’의 실체가 아니다. 구약에서 표현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헤셀에 의하면 ‘정념적’ 존재이고, 예언서의 수많은 부분에서 그분의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혈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라고 하였고, 위선적 예식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사 1:13, 14)라고 하셨다. 호세아서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신랑이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정념을 표현한 정념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가?

어거스틴이 체계화한 타락/구속 중심의 영성은 성서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플라톤적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는 생태의 문제를 적절하게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창세기와 예언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엑카르트와 같은 영성가들²⁰을 통해 전혀 다른 신학적 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튜 폭스는 엑카르트 이전의 여성 창조 중심적 영성 신비가인 빙엔의 힐데가르트 가 환상을 통해 본 다음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이 그림을 힐데가르트의 표현과 더불어 폭스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놀라울 정도로 잔잔한 빛 안에 번뜩이는 형태의 푸른 사람이 있다.” 이 그림에서 평화
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찾아볼 수 있다. 푸른색은 긍휼함을 뜻하며, 앞을 향해 벌려진
양손은 치유와 도움을 뜻한다. 혼자 서 있지 않고,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주의하

²⁰ 마이스터 엑카르트뿐만이 아니라, 창조 영성 영성가와 신학자들의 목록이 줄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다》 236~238쪽에 제시되어 있다.



라. 중앙에 있는 사람 주변에 에너지 장이 펼쳐져 있다. 분명히 그의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몸이 있는 것이다. 힐데가르트와 이후에 마 이스터 엑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위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이해했고, 이 같은 공통된 에너지 장으로의 영혼은 더 큰 실체라고 말하였다. 저 남성의 위에 나 있는 구멍을 보라. 그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를 떠나 다른 것들과 또한 다른 것들은 그와 섞여 있다...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이 그림을 성삼위일체로 이해했다. “하나의 빛, 세 위격,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을 곡선과 원으로 이해했다... “나는 놀랍고 성스러운 한 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원이며, 둥글고 전체이며 이해될 수 없고 나뉠 수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²¹

당시에 푸른색은 ‘공허’를 뜻했고, 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공허의 존재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주 전체에 공허와 치유의 힘을 보내고 있다. 머리 꼭대기의 열린 문은 하나다. 출입문이 하나인 것이다. 그 치유의 에너지가 나오는 문도 그곳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문도 그곳이다. 곧 치유와 공허를 통해 ‘창조’가 된다면, 창조된 피조물은 그 구멍을 통해 창조되고,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한 피조물이 돌아가는 통로도 그 구멍이다. 하나의 문에서 나오고 들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생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에너지이고, 말씀으로 인해 존재하는 혹은 ‘드러나는’ 피조물은 다시 말씀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다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허가 있고, 이곳에서 생을 끝낸 피조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타락/구속의 영성에서와 같이 피하거나 초월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와 말씀이 드러난 ‘현상’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는 장소다. 생태 운동과 햇빛 발전소의 당위성을 말하기 전에, 이런 신학이 타락/구속적 틀에서 나타난 내면성과 초월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창조 중심의 신학을 통해 구속론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영성적 세계관이 변화되면서, 여기서 신학이 다시 구성되고 쓰여야 할 것이다. 이때 생태신학은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고, 햇빛 발전소는 우리 신앙고백의 구체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나오는 말

필자는 이 글이 ‘담론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미셸 푸코가 ‘언설’이나 공식적인 언설과 글은 피상적일 뿐 이를 구성하는 것이 ‘담론(discourse)’이라 했듯이, 타락/구속 중심의 영성을 넘어서 창조 중심적 영성 담론과 담론을 재구성하는 책과 단편적 글들이 모여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양한 담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에 따른 더욱 정교한 책도 나올 것이고, 설교도 나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영성이 우리에게 체화될 것이다. 앞서 마사키 다카시가 말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위기를 넘기려면 문제의 근원에 빛을 비춰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원인’이란 어쩌면 서구 문화의 이원론적 원인이란, 전통적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타락/구속’ 중심의 영성 전통이며, 이것이 근대를 거치면서 강화된 것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혹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영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의 근원에 빛을 비추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단지 피상적 ‘언설’의 기술적 교체를 통해 ‘현상 하나하나에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태양열 집전판을 통한 햇빛 에너지의 사용은 마사키 다카시가 말한 ‘나비문명’ 혹은 창조 중심적 영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생태를 파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표현인 ‘태양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결국 생태 운동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뀌어야 하고, 영성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이에 관해 마사키 다카시의 시적 표현을 통해, 우리의 ‘담론’을 확충해 보면서 햇빛 발전소를 나비 문명적 상상력으로 연결시키기 바란다. 그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한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와 애벌레들이 한꺼번에 태어났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은 부드러운 나무 이파리를 먹고

²¹ Matthew Fox, Illuminations of Hildegard of Bingen, Rochester, Vermont: Bear & Co, 2002. 32-34.



‘마나’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 나무 여기저기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늘었습니다.

몸이 점점 자라 먹는 양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양껏 이파리를 먹어 치우고, 다른 무리와 경쟁하느라 서로 싸워가며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닙니다.

어느 날 마나는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 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 버릴 거야” 하고 걱정이 되

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다 먹으면 나무가 말라서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초여름이 되고 더 통통해진 애벌레들은 먹는 양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나무 이파리들은 애벌레가 갉아 먹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점점 마르면서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병든 잎을 먹은 애벌레들도 병이 들었습니다.

마나는 나무가 불에 타, 모두 죽는 꿈을 꾸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나는 나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을 나무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나는 이제 고치로 변했습니다.

나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사랑에 눈을 떴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그리고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꽃이 피고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비가 된 마나는 투명하고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꽃과 놀았습니다.

가지는 언제부턴가 다시 푸르러졌고, 꽃에서는 열매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

김용민 목사(충북연회, 사랑의사도교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오시어
스러져가는 모든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조화로운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깨트려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공기를 더럽히는 죄악을 행하였음을
주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 위기 속에서 농촌은 가장 먼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땀 흘려 가꾸고 거두는 농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갈수록 비어지고 소외되는 농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농촌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농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모으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독문

이성호 목사

(배재대학교 교목)

인도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18).

회 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 하도다(시편 147:1).

인도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3).

회 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8:3).

인도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6).

회 중: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한일서 1:3).

인도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애굽기 3:7).

회 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애굽기 3:10).



인도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2).

회 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서 8:21).

인도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졌도다(하박국 3:4).

회 중: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전도서 7:11).

인도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창세기 27:28).

회 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시편 54:4).

다 함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시편 54:2).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

창세기 1:3-5

임성식 목사

(남부연회/거사성가교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므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을 빛과 나누시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빛을 밝히시므로 비로소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흑암에 있었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속성입니다. 그래서 태초 창조의 빛과 햇빛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 속에는 빛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도우심 등등 빛 된 하나님의 성품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두움은 마귀의 성품이고 속성이고 죄악된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어두움과 거리를 멀리하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입니다. 농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오는 손길입니다.

먼저 농촌의 현실을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어렵지만, 농촌의 삶에는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이

도시에 비해 아름답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든 삶을 사는 도시 사람들은 시골 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시보다는 농촌 인심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시 노동자의 소득보다 낮은 소득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동의 강도는 높지만, 생산해 낸 농산물은 가격이 현저히 낮아서 대부분 농촌 사람은 농사가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둘째, 대부분이 영세 농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역대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막대한 시설 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논밭에서 생계를 이루어 나가는 영세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생산한 고구마, 감자, 특별해야 딸기와 채소 등속이 전부입니다. 이 생산물들은 공판장을 거쳐 도시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공판장의 가격은 그야말로 똥값입니다. 그러니 가난이 악순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 비료, 씨앗 등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것들은 값이 비싸지만, 생산된 농산물은 평균 가격 이하이다 보니 영세 농민들은 잘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농사짓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힘든 반면에 소득이 적으니 떠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근 도시에서 노동자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등지는 것입니다.

넷째, 농촌에서도 도시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소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짓지 않은 먹거리는 도시에서와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사야 합니다. 노동의 강도는 높고 소득은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데 먹고사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농촌은 도시처럼 문화생활을 하거나 외식이나 밤 문화를 쉽게 즐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령화된 농촌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곳에 자리잡은 농촌 교회는 줄어가는 인구와 소멸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농촌 현실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의 믿는 자 대부분은 고령화되어 점점 성도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오는 손길과 애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라는 주제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사업으로 농촌 교회에 유익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주제 속에는 농촌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농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사랑하사 빛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감리교 농촌 교회에 햇빛 에너지 나눔 운동을 통해 빛 된 하나님의 성품처럼 일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빛을 주시고 빛 된 삶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삶처럼, 길만 보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업이지만 이 일 속에 빛을 사랑하셔서 빛 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된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햇빛 에너지를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발맞추어 가난과 실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농촌 교회를 풍요롭고 활기찬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빛 에너지의 나눔은 농촌 교회에 가나안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주제 이면의 신앙적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은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도 아닌 그가 외면하고 산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났던 자를 더 치료해 줄 것을 간청까지 합니다. 강도 만나 자의 진정한 이웃은 그가 경멸하고 가까이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류애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농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돌보아 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랑! 사마리아인처럼 농촌 교회에 대한 관심,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농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는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리는 데 함께합시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촌 교회를 살릴 힘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정의해 보면서 농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된 태양광 사업을 기대해 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1~15, 31

임재학 목사

(서울남연회/제자교회)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보내고 맞이하는 뜻깊은 농촌선교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농촌선교주일입니다. 농촌선교주일은 감리교회가 2006년 총회에서 매년 지키기로 결의한 주일이며, 올해로 열여덟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17절)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주님은 포도나무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터전이며 먹거리를 가꾸는 농촌과 농촌 교회를 생각하며 감리교회와 온 교우들이 생명의 가치, 농촌의 가치, 창조 질서의 가치를 생각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연대하며 생명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흔히 구속 신앙과 창조 신앙으로 구분합니다. 구속 신앙은 적색 은총, 창조 신앙을 녹색 은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이는 창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과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조 신앙,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 신앙, 그리고 초림에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입니다. 초대 교회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의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회복 신앙입니다.

이렇게 창조 신앙에서 시작해서 구속 신앙,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연결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신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또한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며 모든 민족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조 사역을 하시며 매일 저녁 이 말씀을 하셨고,

1장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름답고 선하시며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처음 창조한 세계는 다양한 생물이 질서 있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자연을 바라볼 때,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실 때도(창 1:27)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만드신 고귀한 존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권세자만 신의 형상이나 하늘의 대리자로 인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천자(天子)란 말은 제국의 군주를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5절)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마 16:26)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에 보면(마 8:28-34, 막 5:1-16, 눅 8:26-39) 거라사 광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괴롭히던 군대 귀신을 내쫓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못된 귀신들을 이천 마리아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생명 가치의 소중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생명 경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우리도 다시금 귀 기울이며 회복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생명의 먹거리를 가꾸는 농부님들과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농촌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와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도시 교회와 성도들이 연대해서 손을 맞잡고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실천하는 우리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지구와 피조물의 탄식(롬 8: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어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생물 다양성의 위기란 말은 낯설지 않고 일상화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살인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과 한파 같은 이상 기후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문제들로 다가왔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체에너지, 탄소중립 문제 등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며 어떤 면에선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피조물의 탄식”처럼 지구에 사는 온 생물들과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병든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말씀처럼 우리 의식과 삶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 살리기와 지구 살리기의 대전환 운동에 동참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뿐 아니라 농촌과 농촌 교회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우리 농촌과 농촌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차로 초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은 몇 년이 지나면 마을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농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급속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도 어렵고, 또 시장 논리로만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은 농촌 생활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제들을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농촌과 농촌 교회를 대하는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생명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살림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선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자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환대했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선한 믿음의 마음들을 품고 본받는 감리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겔 47: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계시와 환상들이 나오는 에스겔서는 특히 '회복'에 대한 환상이 아름답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며,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의 환상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자연과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기쁨 부음을 통해서 회복되며 온전해집니다. 십자가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만나듯이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가 만나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창조 질서와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유기적 관계로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며, 다양한 생명과 자연 만물이 유기체로 연결돼 공존하며, 한 몸으로 어우러지며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와 지구 생태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창조 세계와 녹색 은총을 소망하며, 자연과 피조물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깨닫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노력합시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농촌선교주일의 주제도 ‘햇빛 에너지로 농촌 교회를 살립니다’입니다. 농촌과 농촌 교회를 살리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많지만,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에서 먼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확장 운동에 도시 교회가 함께 손잡고 협력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남연회 양천 지방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환경선교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마다 환경선교주일에 자체적으로 ‘환경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방이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활동에 힘쓴 것은 서울남연회뿐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에서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양천 지방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햇빛 발전소를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교회(담임: 이동원 목사), 두 번째는 세신교회(담임:김종구 감리사)가 했고, 제자교회가 세 번째로 설치했습니다. 2년 전 교회 옥상에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제11호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고, 환경선교주일에 개통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6.3kw의 작은 햇빛 발전소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수령 20년 된 소나무 800그루의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가 생겼습니다. 소나무 800그루면 산은 못되어도 작은 동산 정도는 됩니다. 이 작은 건물 옥상에 만든 햇빛 발전소가 도심 한가운데 작지만 녹색 동산을 만들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도심 속 건물에, 특히 교회 옥상에 이런 햇빛 발전소가 더 많이 생겨나야 하고, 농촌 교회에도 활발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이 일에 도시 교회와 감리교회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촌 교회의 햇빛 발전소는 지구도 살리고 농촌 교회가 자립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감리교회 전체가 농촌과 농촌 교회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갖고 햇빛 발전소 설치 후원에 적극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변화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속 실천을 시작하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감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 희망의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